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3 팩스 857-8549 부속기관 : 꿀벌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미사 안 내	주 일	토요일 주일 : 16:00 (초등부 대성전) , 19:00	
			06:30 (새 벽)	10:30 (교 중)
			10:3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19:00 (청 년)	
	평일		06:30 (새 벽)	19:00 (저 녀)
	예비자교리		일요일 낮 12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 세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총무		옥윤필 마티아 010-5117-5564	

● 본당 시설 관리 및 공사 내용

- 도시가스 안전 점검 기준에 부적합한 도시가스 주 배관 공사 및 보일러 교체
- 소방 안전 관리를 위해 노후화된 소화기/수신기/물탱크 등의 수리 및 교체
- 식당 바닥 파손된 타일 부분 교체
- 주임신부님 사무실/식당/외부 수도와 영안실/교리 교실 복도 등의 상수도 배관 공사
- 본당 외벽 보수 및 방수 공사

● 알 림

- 본당 신자 선종 시, 연령회 총무 옥윤필 마티아 형제님 010-5117-556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유아 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 봉성체 신청받습니다.
 - 유아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식 : 토요일 오전 11시
 -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 (개별 예식)
- 다음주(6월 20일) 단식모금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새벽 미사는 05:50부터 입당 가능합니다.

● 거리두기 2단계 구역별 주일미사 참례 시간

	토요주일 19:00	새벽 06:30	교중미사 10:30	주일 낮 12:00	주일저녁 19:00
06/13	1~5 구역	6~11 구역	12~15 구역	16~20 구역	21~24 기타구역
06/20	6~11 구역	12~15 구역	16~20 구역	21~24 기타구역	1~5 구역

- 구역 외 신자 분들도 구역별 시간표에 따라 미사에 참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를 코와 턱이 덮이도록 똑바로 착용합니다.
- 코로나19 유증상이 있으시면 가정에서 평화방송으로 미사 참례합니다.
- “X”로 표시한 자리는 비워두고 앉지 않습니다.
- 개인이 사용한 주보는 가져갑니다.
- 추후 알림 전까지 주일 밤 9시 미사는 없습니다.

● 베타니아 경로당

- 새로운 어르신들의 많은 참여를 환영합니다.

● 서울대교구 거주미사 본당 전출

- 2016년 01월 01일 이전 영세자 중 교무금/판공성사/병자성사/봉성체 등의 기록이 세대원 중 한 분도 안계신 302세대가 서울대교구 거주미사 본당으로 전출되었습니다.

*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 안내 *

본당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모은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대 위 수거함)
※ 2개월이 경과한 영수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음 주일(06/20)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쉽니다.	청 소	07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06월02일 ~ 06월08일)

- 교 무 금 6,818,000원
- 주일헌금 4,462,500원
- 청소년 주일 2차 헌금 811,000원
- 시설헌금 전월례 5만원 심점순 3만원
- 감사헌금 임은경 5만원 이승문 5만원 최순애 5만원
심점순 10만원 이정순 2만원 김OO 5만원
유OO 10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 설	복 사		독 서	
06/13	황원선	오성환	신종구	안상록	정홍자
06/20	이영민	조홍환	최상림	최웅조	정재경

●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19:00
06/13	최창열	박용환	손상민	이계명	박승환	오광운
06/20	김인기	박형순	이운영	최석준	오광운	이성일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지혜가 빠진 정보

47. 참다운 지혜는 현실과의 만남을 전제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모든 것이 조작되고 위장되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실의 한계와 직접적 만남이 허용될 수 없게 만듭니다. 그 결과 ‘선택’의 메커니즘이 실행되고 내 마음에 드는 것과 들지 않는 것, 끌리는 것과 불쾌한 것을 곧바로 분리하는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동일한 논리로 세상을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 선택됩니다. 이처럼 우리 감성을 해치거나 불쾌감을 자아내는 사람들이나 상황은 오늘날 가상 관계망에서 간단히 제거됩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를 고립시키는 가상의 집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48. 한자리에 앉아서 다른 이들에게 귀 기울이는 일은 인간 만남의 특징입니다. 이는 나르시시즘을 극복하고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며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하는 삶으로 그들을 맞아들이는 사람들이 지닌 환대하는 자세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상은 대개 귀먹은 세상입니다. …… 때때로 현대 세계의 그 광적인 속도는 다른 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듣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의 발언 도중에 이미 끼어들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대답하려 합니다. 우리는 경청의 능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하느님의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삶의 방식으로 삼았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뿌린 씨앗이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49. 침묵과 주의 깊은 경청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조금하고 빠른 문자 메시지 소리로 바뀌면서 사려 깊은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구조가 위험에 놓입니다. 새로운 생활양식이 만들어져, 그 안에서 우리는 원하는 것만을 만들고 통제 불가능하거나 즉각적이고도 피상적으로 파악 불가능한 것은 모두 배제시킵니다. 이러한 역학의 내재적 논리 때문에 우리를 공동의 지혜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차분한 성찰이 방해받습니다.

50. 우리는 이야기 나눔이나 온화한 대화 또는 열정적 토론 안에서 함께 진리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침묵과 고통의 순간도 수반됩니다. 그러나 개인과 민족들의 폭넓은 경험들을 끈기 있게 모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밀어닥치는 정보의 홍수는 더 큰 지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지혜는 재빠른 인터넷 검색에서 태어나는 것도 사실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자료도 아닙니다. 그러한 방법으로는 진리와의 만남을 통한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화는 결국 최신 자료를 중심으로 곁돌며 그저 수평적이고 쌓이기만 합니다. 우리는 삶의 중심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통찰력 있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존재를 의미 있게 해 주는 본질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자유는 우리에게 판매되는 환상, 화면 앞에서 검색하는 능력과 혼동되는 환상이 됩니다. 형제애를 건설하는 과정은 지역적이든 보편적이든 참된 만남을 향한 자유롭고도 열린 정신으로만 나아갑니다.